

# 제Ⅳ장

## 예술문화자원 분포현황

1. 문화예술의 변천사

---

2. 종합예술시설

---

3. 공연예술자원

---

4. 시각예술자원

---

5. 문학예술자원

---

6. 기타 문화예술시설 분포현황

---

7. 문화예술단체 분포현황

---

8. 권역별 문화자원 현황

---



## 1. 문화예술의 변천사

### 1) 개요

- 예술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등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또는 작품의 창작과 감상에 의해서 정신의 충실 체험을 추구하는 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학·음악·조형 미술·연극·무용·영화 등을 총칭하는 말이며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충청남도 공주 지역은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수도이자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현재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2) 시대별 변천

#### (1) 삼국시대

- 삼국시대 공주 지역의 예술은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로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부장품을 통해서 그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뛰어난 세공술을 보여주는 왕관과 왕비관, 각종 금제 관식, 옥을 사용한 조각품 등은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 또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의 축조 양식이나 현재는 소멸되어 그 형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5호분에 담긴 벽화는 당시 공주 지역의 높은 건축술과 회화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소중한 예술품이다.

#### (2) 고려시대

- 고려시대 공주 지역의 주요 예술품으로는 백제의 석탑 양식으로 계룡산에 축조된 남매탑과 원나라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마곡사 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예목각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6도 있으며 탄천면 송학리 지덕골 마애여래좌상도 있다. 그 외에도 공주 수원사에서 출토된 작은 동종이나 탕화도 전해진다.

### (3) 조선시대

- 조선시대 공주 지역의 예술품으로는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 이색, 길재의 위패를 모신 삼은각, 송은 이명성의 충절을 기린 명탄서원(충절사), 사육신의 정신을 기리는 숙모전 등과 같은 우수한 건축물들이 많이 전해진다. 또한 금강과 계룡산 등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정자 건축물도 많이 전해지며 공주 공산성의 공북루와 팔정자는 조선시대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정자들이다. 그 외 서원이나 향교 등의 건축물과 각종 서예 작품도 전해진다.
- 한편 조선시대 공주 지역의 서민 예술로는 관혼상제의 민속에 관련된 사항들과 두레에 관련된 일노래 및 풍장 그리고 남사당패의 공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래는 경기도의 경조민요와 전라도의 육자배기 및 백두대간의 메나리가 모두 흔재한 고장으로 많은 노래가 불리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4) 근대

-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 공주 예술의 특징은 타 고장과 같이 전통 예술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서양의 문물 유입으로 인한 현대 예술의 태동기였다. 장터를 중심으로 여전히 사당 풍장패가 공연을 하고 들에는 두레가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근대식 학교들의 설립과 더불어 신지식인이었던 선생들과 학생들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현대 예술이 태동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와 같은 학교를 통한 현대 예술의 보급은 음악이나 미술 등의 교과 과목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분야인 음악 연주회나 연극 등이 학예회나 시민 위안 공연 형태로 공연되어 공주 지역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으며 민간에도 급속히 전파되어 나갔다. 1930년대 영명학교에서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좋은 사례이다.
- 특히 일제강점기 공주 지역 공연 예술의 큰 변화는 1920년대 당시의 공주 갑부 김갑순에 의하여 설립된 연극 공연 시설인 금강관의 개원이었다. 금강관에서는 신과 연극 공연, 유랑 극단 공연, 만담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따라서 금강관은 공주 지역이 충청남도의 예술을 선도한 고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사례이다.

### (5) 현대

- 광복 이후 1960년대 말까지 공주 지역에서는 농촌 마을의 예술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일제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마을의 대동 신앙과 두레가 복



원되어 전통 문화 예술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신파로 불린 연극의 마을 단위 공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러한 흐름은 연극, 만담에다 명절 노래자랑으로 이어지고 일명 약장수로 일컬어지는 포장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대중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영화관과 라디오의 보급에 이어 TV까지 보급되면서 젊은이들의 농촌 이탈과 함께 쇠퇴하게 되었다.

## 2. 종합예술시설

- 종합예술시설은 어느 특정한 장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창작에서부터 발표, 교육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형(complex type) 문화예술시설을 말한다.
- 종합예술시설은 장르를 뛰어넘은 문화예술 활동을 창출하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하는 동시에,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주도하고, 산하 예술단체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한편, 주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요소를 밀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IV-1】 종합문화예술시설의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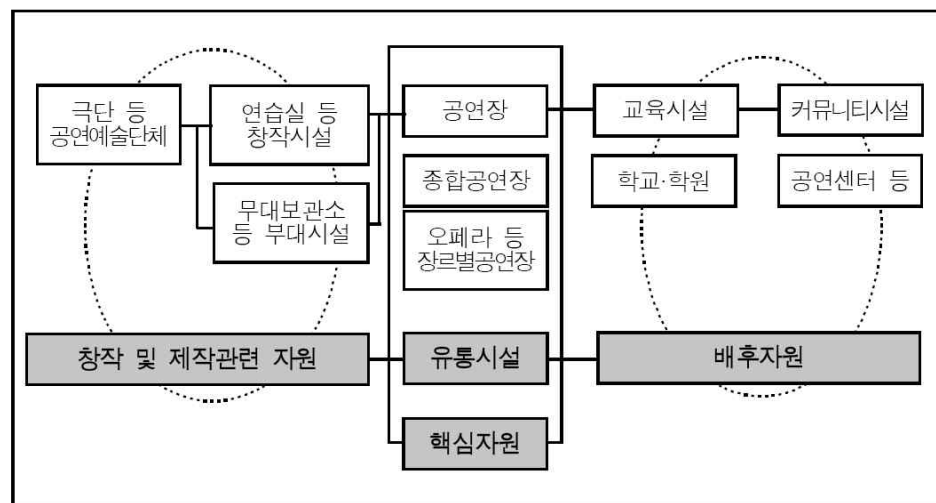
구분	개념 및 역할	내 용
개념	복합형 문화예술시설	- 장르 간 융합(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발표시설) - 기능 융합(창작시설, 발표시설, 교육전수시설 등 다양한 기능 수행)
	예술활동 공간	- 장르를 뛰어넘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기능	랜드마크 역할	- 지역의 랜드마크 또는 도시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능
	국제교류 역할	- 국제 간 교류역할, 국제적 규모의 예술행사 유치 및 예술단 파견
	클러스터 형성	- 다양한 산하단체 및 관련시설 운영 -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관련 요소 밀집

- 종합예술시설로는 예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예술시설’과 각 지자체별로 설립된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예술회관들이 세계적인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을 겸비하여 지역 내에서 종합 문화예술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목적 자체가 지역 내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이니만큼,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에 따라 공주시 구시가지의 종합예술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공연예술자원

#### 1) 조사대상 및 현황

- 공연예술은 실연(實演)을 통해 표출하는 예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예술의 영역에는 음악, 무용(발레), 연극 등의 기초 장르와 이를 바탕으로 뮤지컬과 오페라 등의 장르가 있다.
- 공연예술은 실연을 통해 관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만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만큼 관객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매회 실연자의 능력과 예술적 의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물리적 환경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따라서 공연장 규모와 무대 조건 등 공연 여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곧 공연예술 시장 영역과 직결된다.
- 공연예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작요소인 극단과 연습실, 시장요소인 공연장, 그리고 배후요소인 관련시설(교육시설, 전수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하나의 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 이러한 선순환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조사된 공연장의 특성을 좀 더 세분해 보고, 공연관련 창작기반시설과 그 활동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IV-1】 공연예술분야 선순환네트워크

- 공연장은 공연법 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때 공연이라 함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 실

연에 의하여 대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 상품판매 및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의 실연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시설'로 제한한다.

- 공주시 구시가지에서 실질로 공연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문화예술회관 한 곳으로 파악되었다.

## 2) 주요시설

### (1) 문화예술회관 현황

-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 공주 문화예술회관은 종합문화예술공연시설로 각종 뮤지컬과 음악회, 전시회, 학술행사,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주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 연혁

- 공주문화예술회관은 공주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예술 작품의 발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며, 역사 문화의 고장, 공주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 문화 예술 공연 작품의 기획 공연으로 공주시 문화 예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 공주문화예술회관은 1986년 착공하여 1990년에 준공되었으며, 1996년에 제2전시실 신축, 2000년 대공연장의 무대설비 및 객석 확장, 2008년 대공연장의 음향시설 정비 및 음향 반사판을 설치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현황

- 연 건평 3,820㎡의 건물에 대강당(747석), 소강당(180석), 제1전시실, 제2전시실, 문예인 사랑방, 기타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 2003년 이후 1,000여 차례의 대관을 실시하였고, 2005년 7회, 2006년 11회, 2007년 7회에 걸쳐 기획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 이래 매년 수차례의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 공주시 문화예술회관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교육장	회의 시설 등	공연 유료 관객	총 이용자수	공연 및 대관수입 (백만원)
	객석수	면적 (㎡)	객석수	면적 (㎡)	개수	면적 (㎡)					
공주 문예회관	649	1,255	185	186	2	330	-	-	9,269	70,906	136

자료 : 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총 747석 규모의 객석 확보로 백제문화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충남연극제, 전국연극제 등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대형공연물 기획 및 공연을 통한 지역문화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각종 대관공연, 자체제작 및 초청기획공연, 대관전시 및 초청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각 예술분야에 대한 문화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대공연장
  - 합창,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종합예술 공간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선도하고 있음
  - 객석 총 좌석 수 : 747석, 무대:107평, 조명실, 분장실, 음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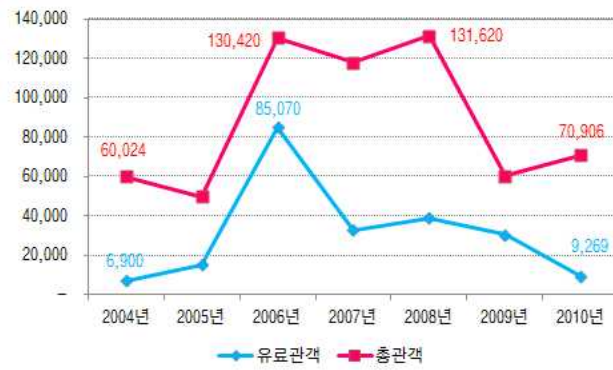
- 소공연장
  - 비교적 소규모의 예술공연, 실내악, 독주회 및 음악발표회, 회의 및 세미나 활용 공간.
  - 음향실, 객석(74평, 180석), 무대 7평, 문예사랑방



- 전시관
  -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술, 서예, 조각, 공예 등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함
  - 제1전시실 50평, 제2전시실 48평

- 공주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관객은 연도별로 상승폭이 매우 크나 총관객은 연평균 2.82씩 증가하였으며 유료관객은 연평균 5.04%씩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 특히 2006년에는 총관객수가 130,420명이었으며 유료관객 또한 85,070명으로 2004년~201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유료관객을 동원하였다.

#### IV. 예술문화자원 분포현황



【그림 IV-2】 공주문예회관 이용자 추이



【그림 IV-3】 공주문예회관 공연모습

### 3) 분야별 현황

#### (1) 연극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행해지는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종합 예술.

##### || 개설

- 연극은 삶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에 기원을 두고 있어 다른 어떤 문화적 산물 못지않게 역사적·지역적·민족적 소산인데 비해 영화는 제작 과정에 창조적 요소와 기계적·기술적 요소, 그리고 경제적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자, 스튜디오, 카메라, 녹음, 현상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며,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촬영기사, 미술가, 음악가, 편집자가 공동으로 작업해야 한다.
- 이처럼 연극과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관객과 극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극장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공간 무대로서 연극과 영화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 || 변천

- 공주 지역 최초의 연극 동호인 단체는 1970년대 후반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결성한 극회 함성(喊聲)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연극 활동을 하던 연출가 김종란이 공주로 내려와 극회 함성을 이끌어 나갔다. 1978년 9월 30일 극회 함성은 이강백 작품, 김종란 연출로 「결혼」을 첫 작품으로 공연하였다.
-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립 때부터 극회를 주도하였던 김종란이 공주를 떠나면서 극회 함성은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교사였던 신현보가 극회 함성에 남아 있던 연극인들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극단을 재정비하였다.
- 신현보가 첫 연출을 맡아 무대에 올린 작품은 조동길 작품의 「달하 노피곰 도다샤」로, 백제 가요 「정읍사」의 설화를 작품화한 것이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는 1979년 10월 14일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호서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신현보의 활동으로 연극의 명맥을 유지하던 공주 지역에서는 1993년 12월 31일 한국연극협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가 탄생되었다.

### || 현황

- 공주 지역에 연극 전문 시설은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주문예회관,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문화원 등에서 주로 연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7월 구 입석초등학교 자리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이 건립되었다.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서는 정기적인 여름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연극인들의 장기 연수도 가능하며, 소극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연극 공연이 치러지고 있다.
- 2008년 현재 공주 지역에 있는 연극 단체로는 충남연극협회(지회장 오태근),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지부장 최용욱), 극단 젊은무대(대표 서경오)가 활동 중이다. 현재 활동하는 연극인으로는 서경오가 1인극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외에 아마추어 연극인들은 있지만 전문 연극인들의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연극 행사로는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 청소년연극축전, 공주아시아1인극제 등이 있다.

### (2) 음악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여러 형식으로 소리를 결합하여 나타내는 시간 예술.

#### || 개설

- 고급 문화가 귀족들의 것이고 서민 문화가 서민들의 것이었던 17세기 이전의 문화적 흐름을 생각할 때, 소리는 참으로 신선한 것이며, 한민족의 문화적 깊이를 깊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귀족 문화에서 파생된 예술이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공주 사람들은 노래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서 “노래 한마디 하세요” 하고 청하면, 대부분 “할 줄 모른다”라고 대답하면서도, 말을 바꾸어 “소리 한마디 하세요” 하고 권하면, “잘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해보지 뭐” 하고 대답한다. 이는 물론 전통 사회를 살아온 노인층에게서 보이는 정서지만, 노래는 기생들이 부르는 것이고 창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인데 비해, 소리는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부르던 것이라는 정서를 나타낸다.

## || 민속 음악

- 공주의 민속 음악이란 전통 사회로부터 전래되고 민중에 의해 전승된 음악을 모두 포함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과 목소리를 이용하는 노래를 모두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역사적인 면에서의 공주의 민속 음악을 찾아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교적 사회 구조는 민속 음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광대라고 천시하여 기록이나 유품을 통한 민속 음악의 역사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현실이다.
- 공주는 오래도록 충청남도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는 현재적 개념으로 도청 소재지의 역할을 천년 이상 해왔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중심지로 있었다는 것은 문화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우수한 문화가 모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화는 항상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의 민속 음악은 매우 다양하며 깊이 있는 특성을 지닌다.
- 현대인들이 아쉬워하는 중고제 판소리의 본 고장이 공주라는 사실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공주가 배출해 낸 명창이 타 지역에 견주어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도 짐작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명창 이동백 외에는 신뢰할 만한 깊이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또한 1402년 이후 관찰사가 정주하여 관에서 육성했던 음악 분야의 공연 연주인들이 오래도록 거주했으리라는 분명한 사실조차 변변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주시 웅진동 현재의 선화당 터 주변에 재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는 정도 밖에는 알지 못한다.
- 공주에는 관과는 관계없이 활동한 재인 단체도 있었다. 계룡면 중장리와 탄천면 삼각리에 살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자체적인 판을 벌여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즐기기도 하였다 하나 역시 변변한 기록이 없고,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 || 주요 단체

- 2008년 현재 공주시에 있는 음악 단체로는 성곡오페라단, 충남교향악단,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음악 행사로는 청소년음악제,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 ① 성곡오페라단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다. 1991년 공주를 비롯한 충청남도 지역의 오페라 문화를 개척하여 우리나라 오페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남오페라단으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성곡오페라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 공주시·계룡시·대전시에서 「돈 조반니」를 공연하였고, 2008년 공주시·부여시·천안시 등에서 「춘희」를 공연하였다.

### ② 충남교향악단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다. 충남교향악단은 도립 교향악단으로 1991년 11월 15일 창단되었다. 2008년 현재 상임 지휘자는 박종혁, 이병현, 장준근을 거쳐 김종덕이 맡고 있다. 매년 정기 연주회, 지역 순회 연주회,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③ 박동진판소리전수관

- 충청남도 공주시 무룡동에 위치한다. 1998년 11월 박동진의 업적을 기리고 후진을 양성하여 우리 전통의 소리인 판소리의 맥을 잇고자 건립되었다. 박동진판소리전수관에서는 판소리 다섯마당, 성서판소리, 단가, 남요 민요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판소리 교습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판소리 체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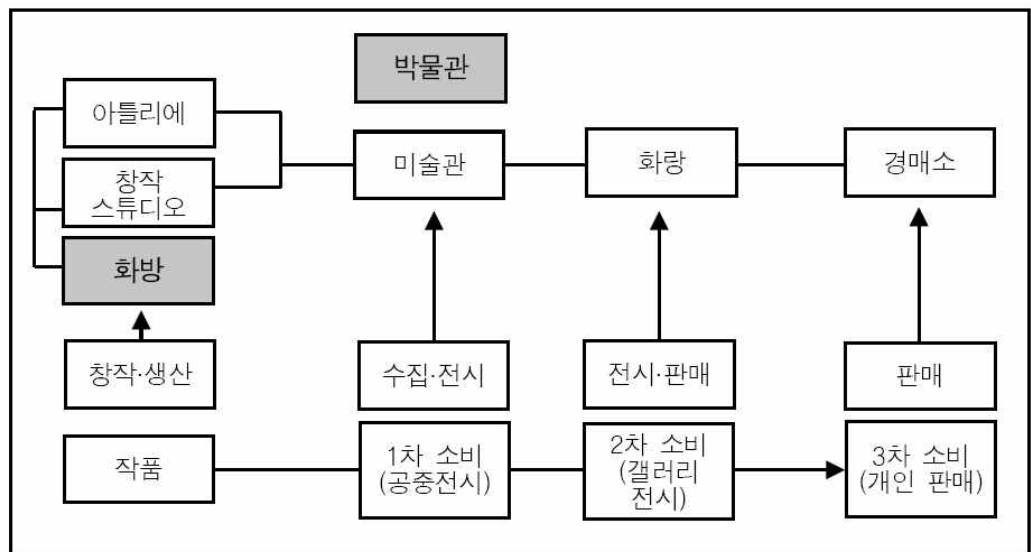
### ④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위치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보급시키기 위해 1997년 10월 개원하였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양금, 대금, 단소, 피리, 풍물 등 9개 분야로 구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강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기획 및 초청 공연을 전개하고 있다.

## 4. 시각예술자원

### 1) 조사대상 및 현황

- 시각예술자원은 눈으로 관람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시각예술자원은 전시시설로 미술관, 박물관, 화랑, 조각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앞의 분류에서 보듯이, 미술관과 박물관은 동일한 유형에 속해 있다. 다만 박물관 중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이 미술관이다. 따라서 시각예술의 영역에는 미술영역과 박물관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경우 대부분 이전 기록을 수집·보존·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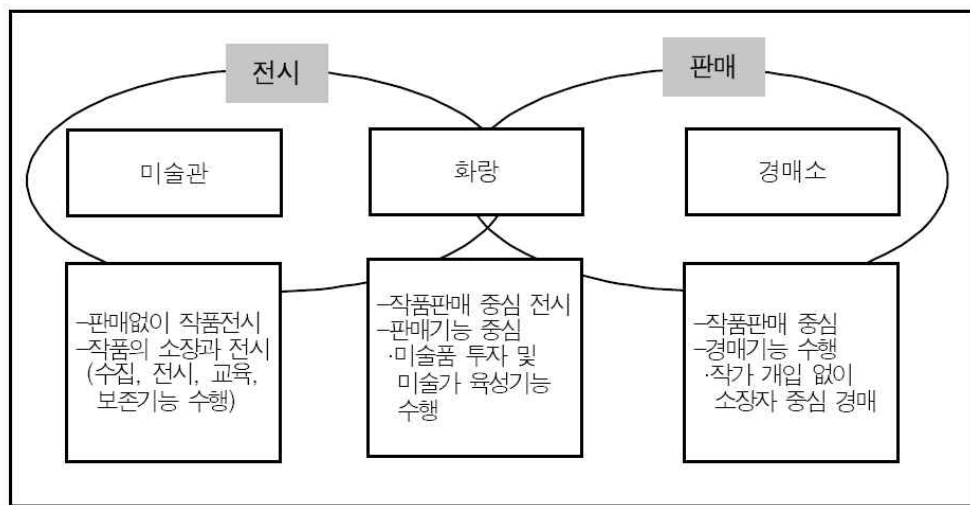


【그림 IV-4】 미술시장의 선순환구조

- 공연예술시장과 마찬가지로 미술영역 또한 하나의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 단, 그것은 공연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일회적으로 판매하는 공연예술과는 달리, 작품의 창작·생산→전시→판매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순환구조를 갖는다.
- 이를 시설영역, 다시 말해 자원요소로 구분하면 창작·생산을 위한 아틀리에와 창작스튜디오, 작품을 수집·전시하는 미술관,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화랑, 작품을 경매하는 경매소 등으로 구성된다.
- 이때, 아틀리에와 창작스튜디오의 차이는 작업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아틀리에에는 작가가 개인적으로 소유·작업하는 공간인 반면, 창작스튜디오는 공공용도에서 설치한 공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 또한 전시공간인 미술관과 화랑은 판매여부를 통해 구분된다. 미술관은 판매 없

이 전시만 이루어지는 공간인 반면, 화랑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다른 한편, 화랑과 경매소는 작품의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화랑의 경우 작가가 작품에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작가(화랑)중심형태를 띠는 반면, 경매소는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작가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경매에 작품을 내놓은 사람은 작가가 아닌 작품을 소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림 IV-5】 미술관련 시설 역할구성

- 공주시의 미술관의 경우 공주시 반포면의 도예촌을 중심으로 미술관이 형성되어 있어 공주시 구시가지에는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우금티 연구소에서 우금티 기념미술관을 2012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화랑은 구시가지에 2개의 화랑(예술사표구화랑, 한국표구화랑)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동과 반죽동에 각각 하나씩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작가 작품과 근거리 대전지역 작가 작품을 취급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 공주시 구시가지 부족한 전시공간을 대신하여 공주시 시청 복도를 활용하여 미니 갤러리를 오픈하였다.
- 공주시에 미술품 경매소는 없으며, 작가들의 공동된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창작스튜디오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 2) 주요시설

### (1) 국립공주박물관

- 1972년 무령왕릉 출토품을 전시하기 위해 공주시 중동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5월에 공주시 웅진동으로 신축·이전하였다. 대지 면적 69,514㎡에 연 면적 11,816㎡ 규모의 2층 현대식 건물로 전시실, 무령왕릉실, 웅진문화실, 기획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 또한 대전·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국보 19점, 보물 3점 등 문화재 16,000여 점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중요 유물은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전문 연구자들이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국립공주박물관은 220석 규모의 강당 세미나실과 야외 공연장도 갖추고 유적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 특강, 박물관 문화 강좌, 박물관 공예 교실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2) 무령왕릉모형전시관

-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무령왕릉모형전시관은 2003년 5월 15일에 개관하였다.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무령왕릉이 1997년 이후 누수와 결로 등으로 폐쇄되면서 이후 5년 동안 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령왕릉 실물 크기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무령왕릉모형전시관을 만들게 되었다.
- 3,300㎡ 규모의 관람실 내부는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 5, 6호분을 축소·복원한 모형 시설과 발굴 당시 출토된 각종 유물 등으로 꾸며져 있고 영상과 패널, 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 기법을 활용해 입체감 있는 관람을 돕고 있다.

### (3)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은 2006년 9월 공주시 중동에 있었던 구 국립공주박물관 건물에 개관하였다. 연 면적 1,000㎡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다. 총 40,571점의 자료가 전시 또는 보관되어 있는데 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시기까지의 역사 자료와 생활 민속 자료 등으로 고대와 백제 중심의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3) 분야별 현황

## (1) 미술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에서 행해지는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

## || 개설

-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산천, 그리하여 예부터 청풍명월의 고향이라 일컬어지던 충청남도의 중심부에 있는 공주는 후박한 인심과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천혜의 예술적 토대와 여건을 갖춘 곳이다. 특히 세계 고고학 사상 가장 중요한 발굴 사례로 손꼽히는 무령왕릉의 발견은 그때까지의 백제사 연구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정교하고 세련된 미술 제품들은 공주라는 도시가 선진 미술 도시였음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 그러나 패망한 국가였다는 이유로 백제는 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비극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훌륭한 미술 전통은 안타깝게도 후세에 제대로 계승되지를 못했다. 하지만 공주 지역은 지정학적 이유로 항상 우리나라의 지방 중심 도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의 충청감영 설치와 더불어 조선 말기에는 지방 행정의 구심점이었던 도청 소재지가 되었던 것이 그 증거다.
- 이런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공주에 일찍이 신교육 체제의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었던 점 등도 공주 지역이 근대 미술의 산실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 || 변천과 현황

- 공주에서 미술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를 못했다. 해방 이후에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이던 미술 교사 중심의 활동이 거의 전부였으며, 여기에 몇몇 간판업자, 유랑 화가, 초상화 제작자 정도가 포함될 정도였다. 난을 잘 그리 유명했던 이정배는 공주 출신으로 이름이 높은 화가였으나, 공주에 머물러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못했다. 더욱이 민족사의 가장 비극적인 6·25전쟁이 일어나 미술은 물론 모든 예술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 1960년대 들어와 6·25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무렵, 공주 지역의 미술계는 새로운 바람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공주교육대학 학생들의 미술 교육을 위해 저명한 작가들이 공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김기숙, 이남규, 조영동 같은 작

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이들은 학생들의 미술 교육을 담당함은 물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공주의 미술계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73년에는 공주사범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설립됨으로써 공주사범대학에 초빙된 국내의 정상급 미술가들이 공주의 미술계에 합류하게 되었고, 공주교육대학에서 배출된 미술인과 정상급 미술가들의 문하생들에 의해 공주의 미술계는 더욱 풍부한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이후 공주문화대학(2001년 3월 공주대학교에 통합됨)에는 산업 공예 디자인, 만화, 귀금속 디자인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고, 공주영상대학에는 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공주의 미술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인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 (2) 민속공예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전승되는 공예 기술 및 작품.

### || 개설

- 일반적으로 민속 공예는 수공업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며 우리나라에서는 민속 공예와 비슷한 의미로 방물(方物)·토산(土産)·물산(物産) 등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민속 공예가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나 실용적인 가치보다 세공이나 장식성과 같은 예술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면 일상생활 용품의 차원을 떠나 공예품이 된다.
- 이러한 공예품 중에서도 민속 공예는 일반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층 계급을 위한 희귀한 공예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미술사에서의 공예와는 다르다. 그리고 민속 공예의 미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건실한 형태나 꾸밈없고 성실한 구조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술적인 숙련에서 비롯된다.
- 이와 같이 민속 공예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있는 토착적인 조형 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의 소산이면서도 정신 문화까지 내포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 공예 또는 민속 공예품으로는 도자기 공예, 전통 목탁 공예, 전통 목공예, 철화분청사기 등이 있다.

### Ⅵ 도자기 공예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계룡산 주변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청자,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의 파편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 또한 상신리 주변 반경 7km 이내에는 도자기에 있어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일본의 도조 이참평의 비가 세워져 있으며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 오직 이곳에서만 생산되었던 계룡산철화분청사기의 생산 가마였던 사적 제333호의 가마터가 있다.
- 1992년에 대전, 공주 등지의 도예가회와 오연회 회원들이 과거 공주 지역 도예촌의 전통을 복원하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자 문화 창출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계룡산 도자예술촌을 건설하였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자연 발생지가 아닌 동시에 일괄적으로 입주한 전국 최초의 도예촌으로서 16,525㎡ 규모에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도예인들도 뜻과 힘을 모아 건설에 일조했던 공동체 마을이기도 하다.
- 한편 계룡산 도자예술촌은 1994년부터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계룡산분청사기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공주시 농·어촌 특산 단지로 지정받아 지역 특산 단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각 공방마다 꾸준히 연구에 힘쓰고 있다.

### Ⅶ 전통 목탁 공예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에 있는 백제불교목공예원에서는 3대(代)째 ‘수(手) 목탁’을 만들고 있다. 각(覺)자가 새겨진 목탁은 일제강점기 당시 고문으로 인해 다리 불구가 된 공덕준이 생계를 위해 목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덕준이 만든 목탁이 모양도 좋은데다 소리까지 청아해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공덕준의 아들인 공점철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계승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공점철의 아들인 공문수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 각(覺)자가 새겨진 목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100년 이상 된 살구나무를 30시간 정도 삶아서 3년을 말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지로부터 가져온 원목을 자를 때만 전기톱을 사용하고 그밖의 모든 작업은 조부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수작업 방식을 따르며 완성하는데 보통 6~8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목탁은 청아한 소리를 자아냄과 동시에 단단하여 깨짐 현상이 없으며 고운 무늬 결을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편 공문수가 운영하는 백제불교목공예원에서는 목탁 외에도 다양한 각종 불교 민속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 || 철화분청사기

- 계룡산분청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철화분청사기는 1480~1540년경에 생산된 도자 예술로 지역적 특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충청남도 공주 지역의 대표적 문화 유산이다. 검붉은 태토에 귀얄로 칠한 막걸리색 분장토가 소박하고 담백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앞선 추상적인 철화 문양을 통해 미의식이 표현된 도자기이다. 비대칭적인 형태가 조화롭고 은은하게 발하는 복스러움, 그러면서도 대범하고 자유로운 필적은 공주의 지역적 풍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심성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 조선시대인 15~16세기 중엽까지 생산되었던 철화분청사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도자 예술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만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백자의 등장으로 분청사기의 생산이 점차 감소되어 갔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생산이 완전 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도예가 이재황이 철화분청사기 생산 기법을 재현하기 위해 도자 재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 || 전통 목공예

-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 국민관광단지의 웅비탑 옆에는 전통 목공예 작업실인 한목예사가 위치하고 있다. 한목예사는 전통 목공예사인 유석근이 전국을 유람하며 전통 목공예 기술을 배운 후 1980년에 고향인 공주에 귀향하여 만든 작업실이다. 유석근은 1988년 목공예 명장을 뽑는 제1회 전국대회에 출품하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목공예 분야의 최고 명장이 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 공예협동조합의 결성을 주도하여 공주 지역 공예가들의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한다.



## 5. 문학예술자원

- 문학은 예술문화의 큰 범주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순환 구조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화자원으로 파악하기 매우 힘들며, 이러한 이유로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속에서 문학관련 자원을 문학과 출판 관련 자원, 그리고 서점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부 시설들은 개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통계치를 이용하여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인쇄소 및 출판사는 2010년 기준 공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주시에는 총 1개의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공주시 중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문화관광체육부에 신고된 공주시의 출판사 수는 42개소이며 인쇄소는 48개소이다(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 그러나 이 수치는 공주시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등록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출판사가 상당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공주시 구시가지 서점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9개가 운영되고 있다가 2개는 폐업하고 7개가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인형 대형서점은 없다.

【표 IV-3】 구시가지 서점현황

구분	위치
국민도서	공주시 중동 213-1
봉황서림	공주시 반죽동 247-2
신광서점	공주시 중동 232
열린문고	공주시 중동 232
웅진도서	공주시 중동 232
이문고	공주시 중동 117-7
동양서림	공주시 중학동 143-10
행림서점(폐업)	공주시 중동 298
웅진문고(폐업)	공주시 중동 232

자료 :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http://www.kfoba.or.kr/index.asp>)

- 문학관의 경우 무릉동에 공주시 명창 박동진 기념관이 있으나 구시가지에는 문학관이나 기념관이 없으며 공주시에서 발간되는 문예지는 공주예술, 웅진문화, 공주문화, 공주여성문학, 금강여성문학동인지 한결음뒤에서, 금강의 돛 등이 있다

【표 IV-4】 공주시 문예지

구분	발간처	주요내용	
공주예술	한국예총 공주시부	공주예총 협회별 활동사항 및 공주 대표 작가 등의 소개	
웅진문화	공주향토문화연구회	공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집회지	
공주문화	한국문인협회 공주시지부	시화전, 시, 수필, 기행문 등 회원들의 다수 작품 수록	
공주여성문학	공주여성문학회	회원들의 글과 그림을 수록	
금강여성문학동인지 한결음뒤에서	금강여성문학동인지회	금강여성문학회원들의 작품 수록 출판기념회 및 낭송회 개최	
금강의 돛	공주도서관 평생교육실, 금강주부독서회	금강주부독서회'회원들의 창작 글 시, 수필, 기행문, 독서 감상문	

## 6. 기타 문화예술시설 분포현황

### 1) 지역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 (1) 문화원

##### Ⅵ 연혁

- 지역의 고유 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활발한 국내외 교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급하며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4년 설립되었다.
- 문화원은 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문화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역에 설립되었다.
- 공주시 반죽동에 위치한 공주문화원은 1994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인 공주문화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공주지역 문화사업과 사회교육사업, 향토문화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 Ⅵ 현황

- 2011년 기준 1명, 부원장 2명, 이사 24명, 감사 2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이 상근하고 있다.
- 또한 문화원의 회원 104명, 향토문화연구소 12명, 공주문화원 품물단 20명, 청소년합창단 30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 2001년 문화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시설로는 지하에 놀이마당과 주차장, 1층에는 강당과 사무실, 2층에는 제1전시실·제2전시실·원장실·향토문화연구소, 3층에는 제1향토사료관·제2향토사료관·회의실, 4층에는 도서관·서고실·사무실·문화사랑방 등이 있다.

【표 IV-5】 공주문화원 현황(2009년 기준)

구 분	시설현황(㎡)							주요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명)
	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기타		
공주문화원	2,160	70	100	250	170	170	1,400	우리문화 순화공연	50,000

자료 : 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공주문화원에서는 소식지 『공주문화』와 공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주의 전통마을』을 발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연구소·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전국 문화 유적 순례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주문화원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 정기 공연, 찾아가는 우리 문화 순회공연,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글짓기 백일장, 향토 작가 초대전, 통합 복권 기금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지역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시키고, 지역 문화가 사회적 중심 가치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문화 의식 제고와 활발한 문화 활동의 전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고장 공주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림 IV-6】 공주문화원

## (2) 도서관

-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웅진도서관과 공주시 월송동에 있는 공주시 강북도서관이 있다. 웅진도서관은 1991년 9월 16일 개관하였으며 공주시 강북도서관은 2006년 8월 16일 개관하였다. 2007년 10월 22일부터 웅진도서관과 공주시 강북도서관을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웅진도서관은 7,600㎡의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20,76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공주시 강북도서관은 6,345㎡의 부지 위에 3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38,76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 (3) 영화관

## ‖ 개설

- 영화관은 영사를 위한 스크린과 음의 재생 장치를 포함한 스테이지, 객석, 영사실, 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는 영화관이 다수 생겼으며, 오늘날에는 복합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화는 영화관의 영사 재생 장치가 중요한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영화라 해도 재생 장치가 불량하면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영화의 색채화, 스크린의 와이드화, 음향의 입체화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에 비해 영화관은 제대로 상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관의 특수한 형태로 야외에서 자동차를 탄 채 관람하는 드라이브 인 극장이 미국에서 발달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상태이다.

## ‖ 변천 및 현황

- 1900년에 개화 문명의 첨단적 시설물인 금강관이 공주 부호 김갑순에 의해 관람석 300석의 규모로 건립되었다가 1945년 해방 후 폐관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강관은 서울의 원각사보다도 2년 앞서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 되는 셈이다.
- 그 후 공주시 반죽동에 공주극장이 개설되었고, 얼마 후 아카데미극장으로 상호가 바뀌었으며, 다시 계룡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다가 몇 년 후 폐관되었다. 그 후 중동에 영화 상영 겸 가수들의 공연 무대로 사용되었던 호서극장이 개설되었고, 산성동에 중앙극장이 개설되었다가 폐관되었다. 이후 산성동에 소극장 규모의 공연장이 개설되었다가 폐관되었고, 2005년 신관동에 롯데시네마, 프리미어시네마가 문을 열었다가 현재는 프리미어시네마가 메가박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 2) 청소년 문화시설 분포현황

- 공주시는 청소년들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하여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비정규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는 구시가지를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시가지내 청소년 문화시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6】 공주 구시가지 청소년 단체/시설

명칭	소재지	운영단체	주요내용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웅진동 433	사)한국BBS 공주지회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무료개방 청소년동아리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공주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반죽동 150-10	공주시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추진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산성동 174-23	사)한국BBS 공주지회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활동 지원
	산성동 174-23	사)한국BBS 공주지회	매주 월.목 순찰, 방송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유 해환경 정화활동

자료 : 20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Ⅱ 공주시 청소년 문화센터

- 공주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2006년 공주시 웅진동에 국비2억원, 시비 3억원을 투자해 개소하였다.
  - 1층에는 안내부스,사무실,상담실,휴게실,포켓볼실,DVD감상실, 열린공간, 정보자료실, 샤워장 2층은 다목적홀, 음악활동실, 동아리방, 탁구장, 소회의실 등의 시설로 조성하였다.
- 2009년에 반죽동에 위치한 2,472㎡부지에 1,447㎡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 공주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지하에는 음악활동실, 댄스연습실이 있으며 1층에는 개인상담실, 동아리활동실, 실내집회장, 컴퓨터실, 도서관, 2층에는 방과후 교실, 포켓볼실, DVD실, 지역아동센터 한문서당, (사)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이, 3층에는 알뜰매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청소년문화센터의 준공을 통해 문화욕구가 강한 10대 청소년의 예술문화, 정보, 미디어 등 다양한 활동욕구에 따른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토론, 휴식, 오락을 통한 청소년간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였다.

### || 공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 공주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전문상담 기관으로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통합지원 전문기관이다.
-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지원하고 청소년 전화 138운영 등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학교 폭력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건강한 성 등의 상담서비스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자 육성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며, 청소년 동아리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금강 청소년문화진흥원

- (사)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은 공주시 관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소양교육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매년 단오제와 중양절을 개최하여 사라져가는 옛 세시풍속 등을 재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외국인까지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전통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각종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및 경연대회 등의 행사를 주관·주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림 IV-7】 청소년 문화센터



【그림 IV-8】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 행사

## Ⅵ 공주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 공주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공주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참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프로그램 등의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의 자원봉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월1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높였으며 봉사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있다.
- 자체적으로 참여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집·인증하고 우수학생의 경우 연말 시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 Ⅶ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학교주변의 폭력단속 및 청소년봉사교육, 위기청소년 멘토지원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 합동단속반을 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실적 증대와 청소년시설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구현하고 있다.



## 7. 문화예술단체 분포현황

## 1) 조사대상 및 현황

- 문화 예술 단체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사진·서예·연예·영화 등 문화 예술의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종류·규모·형태 등으로 결성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공주 지역의 문화 예술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나 공주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들은 각자 고유의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부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2) 부문별 현황

## (1) 문학 단체

-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문학 단체로는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 토요문학동인회, 한시회, 금강여성문학동인회, 공주여성문학회, 한누리문학회, 이은수요문학회 등이 있다.
- 이 중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는 1986년 구중회, 나태주, 유병학, 이극래, 조동길 등이 조직한 공주문학회가 1988년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로 개편되어 설립된 단체이다. 연간 협회지 『공주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청소년 백일장, 회원 시화전, 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그리고 토요문학동인회는 1963년 3월 23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문학 단체이며 한시회는 1964년 7월 공주 향교의 유림과 인근의 한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
- 또한 금강여성문학동인회는 1989년에 결성된 공주 지역 최초의 여성 문인 동인회로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 4월 12일 창립된 공주여성문학회는 공주 지역 여성 문학인들의 통합 문학 단체로 3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2) 음악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의 대표적인 음악 단체로는 충남교향악단, 성곡오페라단, 웅진합창단 등을 들 수 있다.
- 이 중 충남교향악단은 1991년 11월 15일 충청남도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창단되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현악단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 지역 순회 연주회,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성곡오페라단은 1991년 충남오페라단으로 설립되어 2003년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페라 이순신」의 세계화 공연과 지역 순회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다.

### (3) 국악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국악 단체로는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박동진판소리전수관, 한울림국악원 등이 있다. 이 중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는 1997년 6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정기 연주회와 공주시 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은 1997년 10월 29일 개원하였으며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양금, 대금, 단소, 피리, 풍물 등 9개 분야로 구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강습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외에도 각종 기획 및 초청 공연도 하고 있다.
-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은 1998년 공주시 무릉동에 개관되었으며 훌륭한 명창을 배출하기 위한 전문인의 양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체험 교육도 실시하는 등 판소리의 대중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울림국악원은 김익세에 의해 1995년 12월에 창립되었으며 풍물 강습과 공연 등을 주로 하고 있다.

### (4) 무용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무용 단체로는 코스모폴리탄현대무용단, 학무회, 최선무용단 등이 있다. 이 중 코스모폴리탄현대무용단은 1983년에 공주대학교 무용교육과 현대 무용 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무용단이다.
- 학무회는 1987년 4월 3일 공주대학교 무용교육과 전통 무용 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창단한 무용단이다. 최선무용단은 공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인 최선 단장을 주축으로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무용단이다.

### (5) 미술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의 미술 단체로는 한국미술협회 공주시부,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등이 있다.

- 이 중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는 1981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서양화분과, 조소분과, 공예분과, 설치·행정 분과 등 5개 분과에 10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는 1980년 고승현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젊은 미술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다.

### (6) 연극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의 연극 단체로는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와 극단 젊은무대 등이 있다.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는 1993년에 결성되었으며 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매년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정기 공연 및 청소년 연극축전을 주관하고 있으며 회원 극단으로 극단 젊은무대가 활동하고 있다.

### (7) 기타 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기타 문화 예술 단체로는 공주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 계룡문화예술회,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백제문화선양위원회, 탄천장승제보존회, 계룡산 산신제보존회, 공주민속놀이보존연구회, 봉현상례소리보존회 등이 있다.
- 이 중 공주문화원은 1954년에 설립되었으며 향토 문화 연구 사업, 향토 문화 교육 사업, 향토 문화 행사 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부는 1989년 10월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6개 협회에 3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는 사진 예술의 발전과 사진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웅진전국사진공모전, 전국 사진 강좌, 백제문화제사진대전, 회원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3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공주향토문화연구회는 1988년 창립하여 공주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민 문화 단체로 8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는 1955년 백제 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 3) 주요단체

#### (1) 계룡문화예술회

##### || 개설

-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연극 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오태근에 의해 ‘공주계룡문화회’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단체가 후에 계룡문화예술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 || 설립목적

- 충청남도 공주시의 문화 예술 진흥과 교육을 위해 창단되었다.

##### || 변천

- 공주에서 영화 상영관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극장(후에 아카데미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이 영화 관람객의 급감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계룡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각종 공연과 교육을 일주일 내내 무휴로 지속한다는 큰 포부를 갖고 출발하게 되었다.
- 처음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공주의 문화 풍토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간 운영되던 프로그램들마저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타개책을 모색하던 중 계룡문화예술회는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거나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객을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활동사항

- 1994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곱나루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곱나루 시민화합 한마당이라는 행사에서는 국악 공연, 청소년 댄스 공연, 영화 상영, 패션 쇼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여 첫 행사치고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무료로 치러지는 행사를 자비로 운영하다 보니 경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 그 해 12월 28일에는 노인 위안 잔치를 개최하여 국악과 무용을 공연하였다. 1995년에는 전 해에 있었던 곶나루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확대하여 6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행사를 치렀는데, 참가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12월 29일에는 공주시 미화원과 그 가족을 초대하여 위문 공연 겸 노래자랑 행사를 가졌다.
- 1996년에는 산하에 ‘극단 젊은 무대’를 창단하여 공주의 연극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동년 4월에는 신탄진 벚꽃축제를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기획력과 행사 운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4월 24일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다.
- 같은 해 6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곶나루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총 17회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관람하는 등 그 호응이 높았다. 공주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행사를 주도한 단원 다섯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10월 5일에는 충남민속경연대회에 「대동거리제 축수」라는 작품으로 공주시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 동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제1회 공주아시아1인극제에는 기획을 담당하였고, 11월 4일에는 송한운 교수를 초빙하여 학술 강좌를 열었으며, 11월 29일에는 공주 소방공무원 및 가족 초대 공연을 하였다. 11월 30일에는 제1회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0일에는 공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화를 위한 공연을 하였는데, 소장은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였다.
- 1997년에도 지난 해의 행사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곶나루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문화관광부에 의해 지역 축제로 지정되면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곶나루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다양한 행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마다 열렸는데, 그 행사 내용이 더욱 발전되고 세련되어져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 굳건히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 동년 9월 5일에는 제2회 공주아시아1인극제에 기획으로 참여하였고, 11월 1일부터 4일간 일본 구마모토현의 초청을 받아 국제 교류제전에 한국 대표로 참가, 사물놀이와 한국무용을 공연하여 갈채를 받았다. 1998년 3월 14일에는 계룡산 산신제 행사의 기획을 맡아 행사를 치렀고, 4월 28일에는 아산 시민체육공원에서 조선시대 무과(武科) 과거 시험 재현 행사를 기획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 동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곶나루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의 명칭이 변경된 '98 곶나루 축제를 열어, 총 16회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알차게 치렀다. 9월 4일에는 공주아시아1인극제에 기획으로 참여하였고, 10월 13일에는 육군본부

의 초청으로 건군 50주년 기념 행사에 연극 「황산벌」을 공연하였다. 12월 24일에는 제2회 공주댄스페스티벌, 12월 28일에는 제4회 공주대학연극제를 기획 및 진행하였다.

- 1999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1일 계룡산 산신제, 고마나루 축제(7월에서 8월까지 주말마다 총 16회), 공주아시아1인극제(9월), 제45회 백제문화제(10월) 등의 행사에 기획 및 진행을 맡아 행사를 무난하게 치러냈다. 이런 행사의 기획, 진행, 공연 등은 2000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제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각종 문화 행사 때 계룡문화예술회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계룡문화예술회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각 분야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Ⅵ 의의와 평가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충청남도 공주시의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고, 향토 문화의 파수꾼으로서 일관해 온 계룡문화예술회의 노고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2) 공주문화원

### Ⅵ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지역 문화 예술 진흥 기관이다.

### Ⅵ 개설

- 1954년 12월 16일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문화 예술 기관으로 공주 지역의 문화 사업과 사회 교육 사업 및 향토 문화 연구는 물론 각종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 Ⅵ 설립목적

- 지역의 고유 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활발한 국내외 교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보급하며, 지역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 변천

- 1954년 7월 19일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12월 16일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1994년 8월 24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인 공주문화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1년 6월 1일 문화원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년 제14대 정재욱 원장이 취임하였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소식지 『공주문화』와 공주 지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주의 전통마을』을 발간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연구소·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전국 문화 유적 순례 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주문화원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정기 공연, 찾아가는 우리 문화 순회 공연,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글짓기 백일장, 향토 작가 초대전, 통합 복권 기금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 활동사항

- 지역문화학교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강좌마다 주1, 2회(1회 2시간)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한 차례 발표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강의 내용은 교양, 스포츠, 어학 등으로 강사진은 지역 대학의 교수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24명, 감사 2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이 상근하고 있다. 그밖에 회원 104명, 향토문화연구소 12명, 공주문화원 풍물단 20명, 청소년합창단 30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시설로는 지하에 놀이마당과 주차장, 1층에는 강당과 사무실, 2층에는 제1전시실·제2전시실·원장실·향토문화연구소, 3층에는 제1향토자료관·제2향토자료관·회의실, 4층에는 도서관·서고실·사무실·문화사랑방 등이 있다.

### || 의의와 평가

- 지역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시키고, 지역 문화가 사회적 중심 가치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문화 의식 제고와 활발한

문화 활동의 전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의 고장 공주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 (3)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국악원.

#### || 개설

- 충청남도와 공주시의 지원으로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을 알리고 보급시키기 위해 1997년도에 개원한 국악원이다.

#### || 설립목적

-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 고유의 음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 음악을 알려 우리의 흥과 멋, 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사고의 정립과 자긍심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음악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 변천

- 1997년 10월 29일 공주연정국악원이 설립되었고, 2002년 2월 5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공주연정국악원이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으로 개명되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아쟁, 해금, 양금, 대금, 단소, 피리, 풍물 등 9개 분야로 구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로 우리의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강습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기획 및 초청 공연을 하고 있다.
- 강습에는 일반 국악 교실,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악 교실, 야간 국악 강습이 있으며 오지 학교 및 사회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악 교실, 동·하계 국악 강습회, 현장 국악 체험 교실 등이 있으며, 공연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국악 어울 마당’, ‘선화당 국악 이야기



기' 등이 있다.

- 각각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국악 교실은 연중 주간에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충청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주 2회 국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악 교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국악원 단원들이 직접 충청남도 소재 학교나 일반 단체를 찾아가 국악을 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 야간 국악 강습은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주간 강습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 등 도민들을 위해서 10주 과정으로 야간에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오지 학교 및 사회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악 교실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악 교육의 혜택이 적은 오지의 초·중·고등학교와 문화 소외 지역의 사회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국악기를 직접 만져 보고, 듣고, 배워 보는 체험 위주의 교육 사업이다.
- 동·하계 국악강습회는 겨울·여름 방학을 이용해 국악기를 2주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사업이며, 현장 국악 체험 교실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배워볼 수 있는 현장 학습 사업이다.
- 또한 '선화당 국악 이야기'는 연 2회(5월, 9월)에 걸쳐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선화당 야외 잔디 마당에서 아름다운 선화당을 배경으로 전통 국악 공연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 및 연인들과 함께 국악이 만드는 어울 마당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획 공연이고, 청소년을 위한 '국악 어울 마당'은 12월 초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1년 동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통해 국악을 배운 학생들과 국악원 단원들이 만들어 가는 기획 공연이다.

## || 활동사항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 개원한 이래로 최근까지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요약하면, 1997년 강습회, 개원식 등에 650명이 참가하였고, 1998년에는 강습회, 출장 강습회, 행사 및 기념 공연 등에 22,340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 1999년에는 27,718명,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주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24,285명, 2001년 19,465명, 2002년 6,550명, 2003년 9,784명, 2004년 17,086명, 2005년 21,094명, 2006년 16,336명, 2007년 8,033명 등 11년 간 총 1135,911명이 참가하였다.

- 이는 연 평균 12,355명이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방문 또는 강습한 것이다. 이것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널리 보급하는 데 일조를 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우리 음악을 다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2008년에는 일반 강습, 도민을 위한 동·하계 국악 강습,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 복지 시설을 위한 찾아가는 국악 교실, 야간 국악 강습, 초·중·고·대 학생 및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국악 체험 교실, 제9회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국악 한마당,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국악의 향연인 토요일 국악 한마당, 각종 시설에서의 공연인 특별 및 초청 연주회 등의 프로그램이 구상되어 있다.
- 특히 2008년 3월 27에는 ‘봄을 여는 비나리’라는 제목으로 제8회 국악 어울마당이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 날 연주회는 1,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으며 비나리의 명인 이광수 민족음악원장, 대금 전윤허, 가야금 임정연, 해금 이혜선 등이 출연하여 참여한 관객들에게 우리 고유 음악의 멋과 흥을 한껏 알려 주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은 국립공주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기와로 된 건물로, 조선시대 충청감영(지금의 도청)이었던 선화당과 붙어 있다. 조직 인원에는 원장 1명, 수석 단원 1명, 상임 단원 10명, 비상임 단원 8명 등 20명이 있다.

## || 의의와 평가

-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을 통하여 고유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국악 한마당과 같은 소규모 공연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제고 하고 있으며, 문화의 도시이자 백제 고도인 충청남도 공주시를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4) 공주시 향토문화연구회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지역 문화 단체.

#### || 설립목적

- 공주 지역의 전통 문화 유산을 발굴, 조사, 연구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 || 변천

- 1988년 3월 공주사범대학의 교원을 중심으로 웅진문화동호회로 창립되었고, 10월 13일 공주향토문화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2월 30일에 『웅진문화』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93년 12월 가입 자격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단체로 전환하였다. 2007년 12월 『웅진문화』 20집을 간행하였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지역 문화 연구 및 답사 활동, 세미나 개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지 및 향토지 간행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시민 단체로서 지역 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 문화 단체의 국제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 || 활동사항

- 20년간 150여 회의 공주 및 주변 지역 답사와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향토지와 회지인 『웅진문화』를 20집까지 간행하였다. 일본 가라츠시의 무령왕실행위위원회와 자매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한·일 공동으로 무령왕 기념비 건립, 가라츠시 축제 방문 등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 || 현황

- 2008년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중심으로 8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답사, 발표, 회지 간행, 지역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 의식과 역사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활발한 국제 교류로 공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5) 백제문화선양위원회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백제문화제 추진 단체.

### || 설립목적

- 백제 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 || 변천

- 1955년 백제문화제가 열린 부여에서 백제대제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66년부터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면서 공주와 부여를 종합하는 백제문화제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주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로 활동하다가 1991년부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백제문화제의 행사계획, 프로그램 작성, 지역 주민 참여, 관광객 유치 홍보와 행사 예산 심의, 백제 문화 선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부 조직인 집행위원회는 백제문화제 행사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 || 활동사항

- 1955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주관하고 있다. 1회부터 11회까지는 부여에서 개최하였고, 1966년부터 1973년까지는 공주와 부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는 공주·부여와 대전이 동시 개최하였고, 1979년부터 대전은 제외되고 공주와 부여가 격년제로 치르다가 2007년부터 공주와 부여가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의장으로 명예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2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선양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다.

## (6) 예인촌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문화원이 후원하는 문화 예술 단체.

### || 개설

- 예인촌은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무용단, 극단 파고, 월가리 풍장단, 웅진어린이합창단, 극단 금성, 우리문화공연단 논두렁 발두렁, 햇님스튜디오 등이 모여 만든 문화 예술 단체이다.

### || 설립목적

- 정부 지원금 없이 순수한 예술 활동으로 공주의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단체 간 상호 협력 공연을 통한 작품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창단하였다.

### || 변천

- 2001년 공주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가 모여 예인촌을 창단하였다. 2004년까지 권재덕이 초대와 2대 대표로 활동하였고, 2006년까지 이걸재가 3대 대표를 맡았다. 2007년 최선이 4대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매월 정기 공연을 하고 있다. 불우 시설 위문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단체 간

상호 협력 공연을 연중 실시하여 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기 공연 5회와 불우 시설 공연 3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 활동사항

- 예인촌 창립 후 정기 공연으로 2004년까지 연 10회 매 월(동절기와 하절기 제외) 1회 정기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 이후 해마다 격월로 5회의 정기 공연을 하였다. 2008년 4월 현재 38회 정기 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공주교도소, 국립 공주병원,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명주원 등을 찾아 위문 공연을 하고 있다.
- 주요 단체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최선무용단이 한국무용을 공연하고 있고, 극단 깊은 여운은 공주여자고등학교 연극부 출신으로 구성된 극단으로 연 1작품 이상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월가리 풍장단은 향토 소리꾼 권재덕이 결성하여 활동하는 풍물패로 시골 풍장과 민요를 재구성하여 공연하고 있다.
- 논두렁 발두렁은 공주문화원의 실버 문화 학교 사업으로 양성된 향토 소리꾼·풍물인·우리 문화 애호가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공주의 향토 민요·들노래·두레 풍장·인형놀이·동요 등을 재구성하여 공연하며, 2005년 결성과 함께 우리 문화 종합극 「녹두장군 오셨네」를 5회 공연하였다.
- 웅진어린이합창단은 공주에서 활동하는 성악인이 결성하여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정기 공연과 임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극단 파고는 공주영상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극단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공연해 왔으나 2007년 서울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면서 예인촌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밖에 가야금 연주가, 거문고 연주가, 단 예능보유자 등이 개인 자격으로 예인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2명, 고문 1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정부의 지원금 없이 순수 자비로 운영하는 문화 예술 단체로 공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7) 충남교향악단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도립 교향악단.

#### || 개설

- 1991년 첫 연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주 지역에서 터를 잡고 연주회를 꾸준히 열어 음악 애호가의 저변 확대를 통해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지역의 클래식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립 교향악단이다.

#### || 설립목적

-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충남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여 국내 공연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 변천

- 1991년 11월 15일 창단, 초대 상임 지휘자 박종혁을 비롯하여 이병현, 장준근 지휘자를 거쳐 김종덕 상임지휘자에 이르고 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충남교향악단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현악단으로 창단되었다. 충남교향악단은 악단이 창단된 이래 충남도민을 위한 아름다운 선율의 교향악을 연주하면서, 매년 정기 연주회, 지역 순회 연주회,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특히 지역 순회 연주회는 공주 지역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클래식 연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음악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계층이나 문화 소외 계층 등을 중심으로 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 충남교향악단은 다양한 연주회를 통하여 공주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직접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충청남도 도민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을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예술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은 물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 || 활동사항

- 충남교향악단은 지금까지 충청남도 도민의 문화 수준에 맞춰 정기 공연을 포함한 수많은 연주회를 개최하여 왔다. 2007년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1월 23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 개최된 ‘새해맞이 음악회’를 비롯하여 총 56회의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
- 정기 공연 6회(연 인원 4,100명), 특별 공연 6회(연 인원 5,820명), 순회공연 17회(연 인원 7,860명), 사회 복지 시설 및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27회(연 인원 5,670명) 등을 개최하여 총 23,450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다. 2008년 1월 18일에는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정기 개최된 ‘2008 신년가족음악회’를 비롯하여 17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 그 중에서 정기 공연 2회(1,100명), 순회공연 1회(500명), 찾아가는 음악회 13회(1,410명) 등의 공연을 성공리에 맞췄다. 앞으로도 정기 공연, 순회공연, 특별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공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람객 수는 작년 정도의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충남교향악단은 무령왕릉 바로 맞은 편 공주문예회관에 있다. 상임지휘자는 공석이고 제1바이올린 12명, 제2바이올린 11명, 비올라 9명, 첼로 6명, 더블베이스 6명, 플루트 3명, 오보에 1명, 클라리넷 1명, 바순 3명, 호른 4명, 트럼펫 2명, 트롬본 3명, 튜바, 팀파니, 타악기 각각 1명 등 총 6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상임 및 비상임 단원 총 90명이다.

## || 의의와 평가

- 공주시민을 비롯한 충청남도 도민들의 아름다운 선율 향유 제공은 물론, 참신하고 가치 있는 음악 활동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연주회를 통하여 특별한 계층만이 클래식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8)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국악 단체.

#### || 개설

-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시·도 지회, 지부 중의 하나로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시부(일명 공주예총)의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 설립목적

-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는 회원 상호 간의 노력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의 국악 문화 창달과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 || 변천

- 1대 지부장은 조성보가 1997년 6월 28일부터 2001년 6월 28일까지 역임하였다. 2대 지부장은 조성보가 2001년 6월 28일부터 2005년 6월 28일까지 역임하였다. 현재 3대 지부장으로 김익세가 2005년 6월 28일~2009년 6월 28일까지 역임한다.

#### || 활동사항

- 1997년 제1회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정기 연주회와 제1회 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5회 충청남도 남여풍물경연대회에 참여하였다.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에서는 정기 연주회와 학생국악경연대회가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되어 2007년 현재 제11회에 이르고 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4명을 포함한 임원 16명과 사무국장 1명이 있다. 회원 39명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충청남도 공주시는 국악과 관련이 많다. 박동진판소리전수관과 공주시 충남연정 국악원이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공주지부도 중고제 판소리의 고장인 공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알리고 있다. 또한 국악과 관련된 대회, 정기 연주회 등을 매년 열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 (9)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미술 단체.

### || 설립목적

- 미술을 즐기고 애호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주의 미술을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 || 변천

- 공주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공주미술협회를 결성한 뒤 1981년 9월 22일 한국미술협회 제312호로 인준을 받아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로 출범하였다.
- 초대 지부장에 공주교육대학교 안중호 교수가 추대되었으며, 한국화분과에 김순기·백인현·최기성 등 7명, 서양화분과에 김영목·유순식·임영우 등 8명, 조소분과에 김윤집, 공예분과에 안중호 등 4개 분과 18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1983년 2대 지부장에 공주교육대학교 황교영 교수, 사무국장에 임영우가 임명되었다. 1985년 3대 지부장에 공주사범대학 강신철 교수가 선출되었다.

### || 활동사항

- 1981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창립과 함께 제27회 백제문화제 기념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 창립전을 공주문화원 화랑에서 개최하였고, 1982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부전에 여러 회원이 작품을 내고 참여하였다.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공주신용협동조합 2층 전시실에서 제2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을 열었다.

- 1983년 10월 17일부터 6일 동안 대천문화원 초청으로 문화원 화랑에서 제3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을 가졌고, 10월 25일부터 천안 미도파백화점 전시실에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부전을 개최하였다. 1984년 6월 24일 대전시민회관에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부전, 11월 24일 공주문화원 화랑에서 제4회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전을 각각 열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조직은 한국화분과, 서양화분과, 조소분과, 공예분과, 설치행정분과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원 12명과 회원 40명 등 총 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한국미술협회 공주지부는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단체로 미술을 사랑하는 공주 시민들과 함께 공주의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 (10) 한국사진작가협회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사진 단체.

### || 설립목적

- 사진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창작 활동으로 지역의 사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변천

- 1978년 7월 20일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창립되었고, 초대 이상우 지부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10월 4일 제25회 백제문화제촬영대회를 계기로 저변이 확대되고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제7대 양재관 지부장이 협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매년 웅진전국사진공모전, 전국 사진 강좌, 백제문화제사진대전, 회원전과 테마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주예술제에서 사진 작품 전시회를 주관하며, 공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시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 ‖ 활동사항

- 1979년 시작된 제25회 백제문화제촬영대회를 백제문화제사진대전으로 발전시켰으며, 공주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담아내어 백제의 고도 공주시를 홍보하고 있다. 공주예술제에서 사진 전시회를 주관하고 가족사진 찍어주기를 무료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웅진전국사진공모전을 17회째 개최하였으며, 지역 사진 동아리 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 회원전과 연합 출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자문위원 1명, 고문 1명, 지부장 1명, 부지부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연구간사 1명, 사업간사 1명, 기획간사 1명, 홍보간사 1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 의의와 평가

- 공주시·연기군·청양군 3개 시·군을 합하여 이루어진 대단위의 지부로 지역의 사진문화 발전과 공주시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 (11)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한국연극협회 소속의 연극 단체.

### ‖ 설립목적

-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는 공주 지역 연극 예술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창립되었다.

### Ⅵ 변천

- 1970년대 후반 연극을 하던 대학생들과 평소 연극에 관심이 있던 일반인 몇 명이 모여서 ‘함성(喊聲)’이라는 극회를 결성하였다. 이 함성이 바로 공주 지역의 근대적인 연극 단체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연극 활동을 하던 연출가 김종란이 공주로 내려와 극회 함성을 이끌어 나갔다.
- 1978년 9월 30일 극회 함성이 이강백 작품, 김종란 연출로 첫 작품 「결혼」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미약하나마 관객들이 극장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극회 함성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립 때부터 극회를 주도하였던 김종란이 공주를 떠나면서 한동안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 이후 교사였던 신현보가 극회 함성에 남아 있던 연극인들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극단을 재정비하였다. 신현보가 첫 연출을 맡아 무대에 올린 작품은 조동길 작품의 「달하 노피곰 도다샤」로 백제 가요 「정읍사」의 설화를 작품화한 것이었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는 1979년 10월 14일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호서극장에서 공연되었다.
- 신현보의 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공주 지역 연극인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공주 지역의 연극을 발전시키고자 1993년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를 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동년 12월 31일 중앙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부 산하 협회로 가입하였다.

### Ⅶ 주요사업과 업무

- 한국연극협회 공주지부는 주요 사업으로 매년 정기 공연 및 청소년연극축전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공주에서 개최되었던 제21회 전국연극제 및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를 충남연극협회와 함께 공주에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Ⅷ 현황

- 2011년 11월 현재 지부장을 포함하여 임원 7명에 2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 연극인보다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많은 편이다. 회원 극단인 극단 젊은무대는 공주아시아1인극제 등 1인극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12)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 || 정의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미술 단체.

### || 변천

- 1981년 8월 공주시와 금강 유역을 근거로 활동하던 젊은 미술가들인 고승현·유동조·임동식·지석철·허진권 등이 중심이 되어 야외현장미술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별칭인 야투(野投)는 작가의 생각을 자연 속에 표현한다는 뜻이다. 1983년 야투 자연미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5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로 다시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 || 주요사업과 업무

-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설치, 행위, 비디오, 사진 매체 등을 이용하여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연 4회의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개인전과 외국의 자연 미술 전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 || 활동사항

- 1981년 창립 이래 사계절연구회라는 내부 모임을 통해 자연 미술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시켜 자연 미술의 미학적 연구와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1년 공주에서 개최한 금강국제자연미술전은 국제적 미술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현재까지 20여 차례의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 미술계에 그 기반을 구축하였다.
- 1998년과 1999년에는 예술과 마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원골에서 국내·외의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자연 미술적 방법론으로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자연 미술이라는 특성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세계 최초의 비엔날레를 출범시켜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자연 미술인들의 예술적, 학술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 || 현황

- 2011년 10월에 '2011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가 공주시 금강국제자연미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Ⅵ 의의와 평가

- 지역의 예술인들에 의해 자생하여 성장한 자연 미술과 자연 미술제가 국제적인 예술제로 성장·발전하게 되었고, 나아가 공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8. 권역별 문화자원 현황

- 앞서 공주시 구시가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자원과 각각의 예술 장르에 따라 관련 자원을 살펴보았다. 이중의 일부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지역적 특성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만드는 자원들을 각각의 생활권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시가지를 제민천을 기준으로 4개 지구와 곰나루지구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 1) 제민천 남서측

#### (1) 개요

- 제민천을 기준으로 남서측 지구로 과거에서부터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 공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중심지 역할과, 공주교육대학교, 공주사대 부설 중고교, 공주여고 등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 공주시 구시가지 문화발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며, 이곳의 성장과 함께 공주가 성장하였고 쇠퇴와 함께 공주시 문화가 쇠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지역을 배경으로 과거 많은 하숙촌이 운영되었으며, 주요한 시설도 행정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대서소, 문구점, 식당 등의 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폐업을 한 상태이다.

#### (2) 문화자원 분포현황

- 이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의 중심지라기보다는 문화이용객들의 중심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은 적은편이다.
- 주요 문화시설은 공주교육대학교의 문화시설과 금학동·중학동 주민센터가 있으며, 또한 과거 번창했던 공주약령시장터가 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시장터를 나타내는 비석만 남아있다.

- 상업시설은 공무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식당인 곰골식당, 무궁화회관, 정동진 칼국수, 여씨네항아리 등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하숙집으로 많은 운영되던 곳이 지금은 원룸촌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IV-9】 제민천 남서측 문화시설 현황

## 2) 제민천 남동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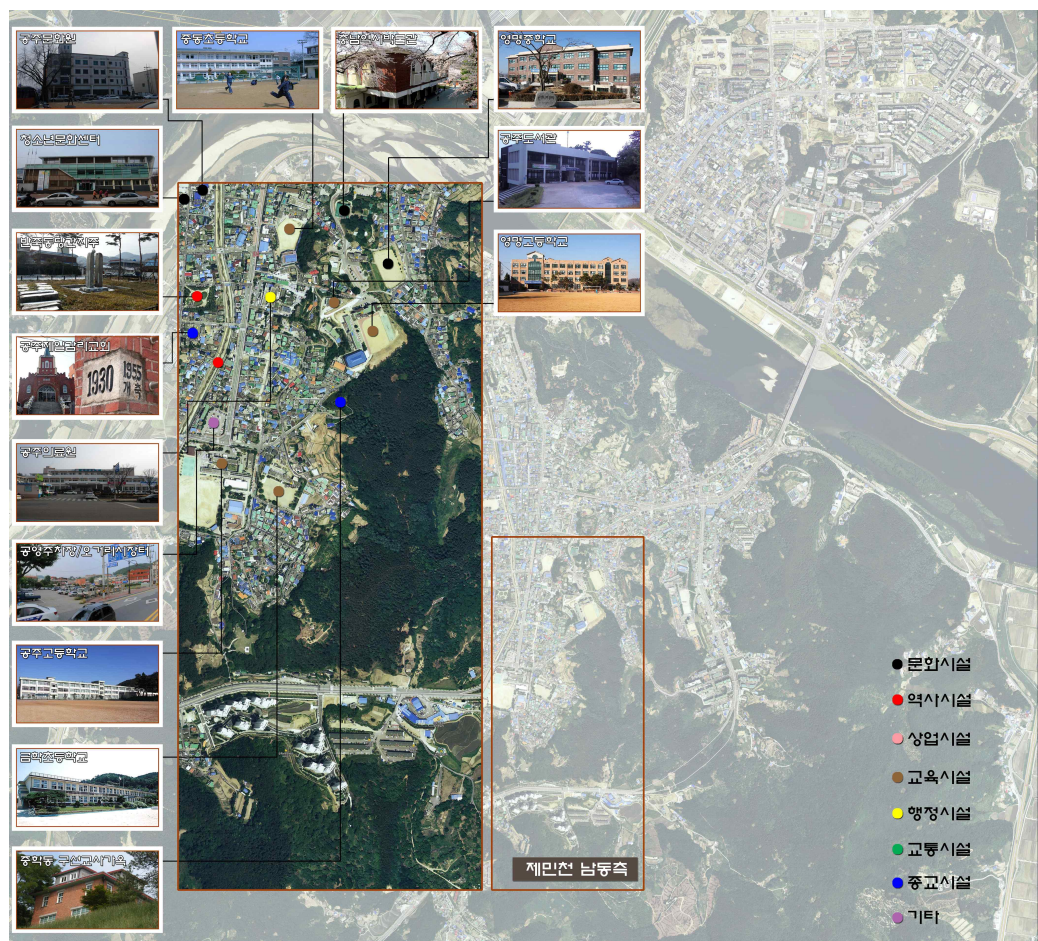
### (1) 개요

- 제민천을 기준으로 남동측 지구로 공주고등학교에서 중동초등학교에 이르는 구역으로 이 지역 역시 교육의 중심지이며, 과거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지구로서 공주시 구시가지의 주요 문화예술 시설 다수가 있는 지역이다.
- 공주시 구시가지 문화예술발전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며,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문화자원 분포현황

- 이 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의 중심지라서 반죽동을 중심으로 주요 문화시설이 입지해 있는데, 공주문화원, 구읍사무소, 청소년문화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자원으로 공주갑부 김갑순 저택과 반죽동 당간지주 등이 있다.
- 또한 문화전시시설로 충남역사박물관이 있으며, 문화전수시설로 공주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 이 지역은 과거 문화공연의 중심지로서 영화관과 소극장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모두 폐업을 하고 남은 건물만 남아 있으며, 상업시설로는 제민천을 따라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문구점과 분식점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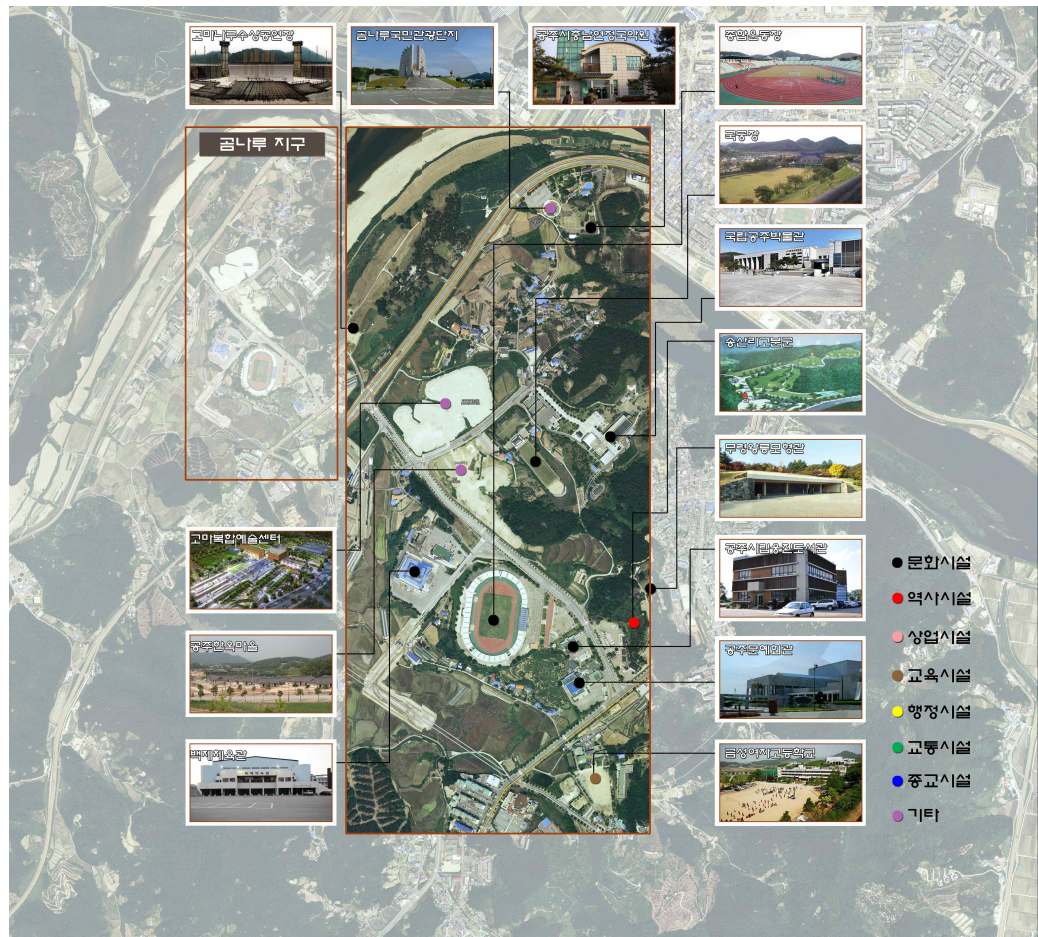
【그림 IV-10】 제민천 남동측 문화시설 현황





#### IV. 예술문화자원 분포현황

- 고마나루지구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국립공주박물관이 있으며, 공주시 구시가지의 공연, 전시,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주문예회관이 있고 전수기관이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과 국립공주박물관이 있다.
- 곶나루국민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공주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고마복합예술센터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며, 주변에 숙박시설로 공주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체육시설로는 백제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문화전수시설로는 공주시립웅진도서관과 무령왕릉무형관, 송산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 세계대백제전 개최 시 수상공연장이 설치되어 수상공연을 상연한 장소가 있어 현재 공주시의 핵심 문화예술지구이다.



【그림 IV-12】 고마나루지구 문화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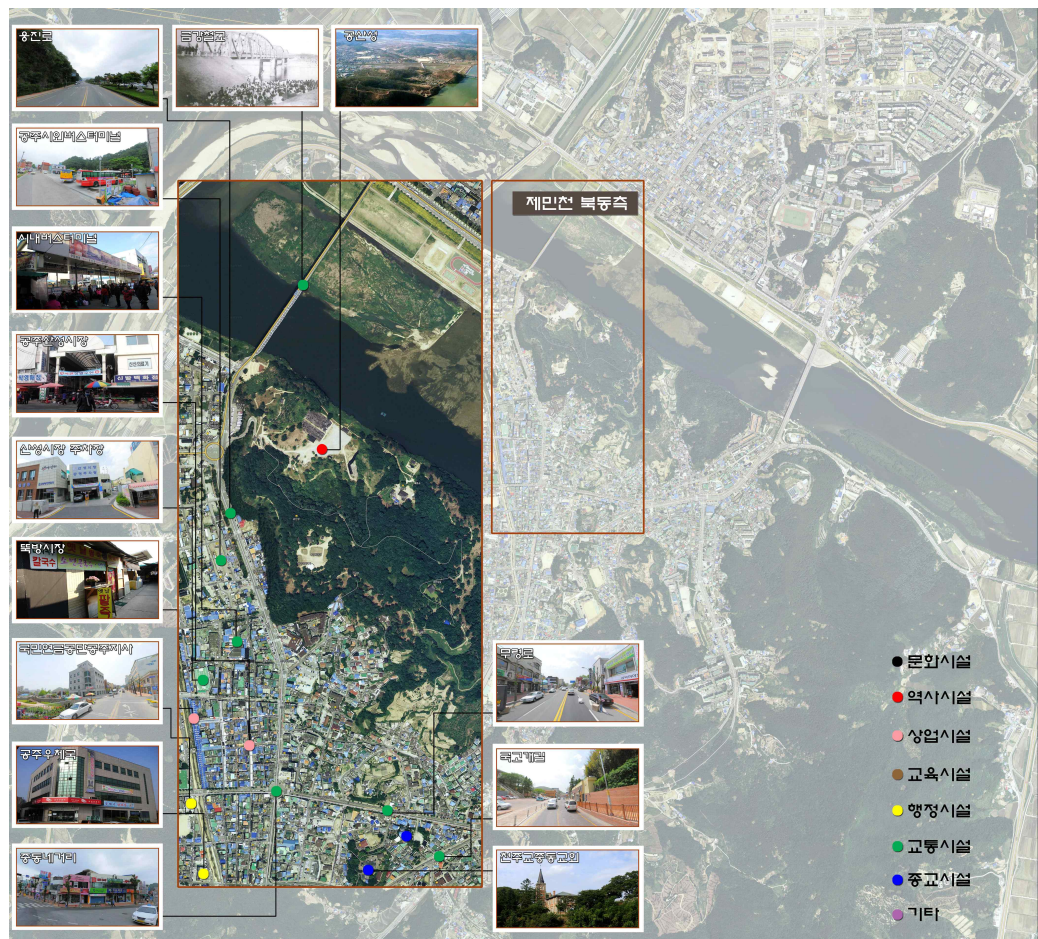
#### 4) 제민천 북동측 지구

##### (1) 개요

- 제민천을 기준으로 북동측 지구로 공산성과 산성시장의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이다.
- 중동네거리를 중심으로 공주시 구시가지의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주시민의 주요한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다.

##### (2) 문화자원 분포현황

- 주요한 문화시설로는 역사문화자원으로 공주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인 공산성이 있으며, 근대건축물인 천주교중동교회가 있으며, 국고개길은 가로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림 IV-13】 제민천 북동측 문화시설 현황

- 공주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이 있어 공주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다.
- 공주시의 대표적인 시장인 산성시장과 뚝방시장이 있으며, 산성시장에는 산성문화공원이 있다.
-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가시설과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산성 앞쪽으로는 관광객 대상의 대형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다.